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미래엔 아이세움 | 최형미 글 | 김다정 그림 | 100쪽

1단계



독서 준비

1. 아래는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의 표지입니다. 두 표지를 보고 서로 다른 5곳을 찾아보세요.



2. '마녀'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적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1단계



아래는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의 80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구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구름이의 표정을 그리고, 생각을 써 봅시다.

나는 너무 울어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몇 번이나 안아 주고 토닥여 주고 달래 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이제 나는 앞으로 엄마를 미워할 거야. 엄마도 날 미워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새엄마니까!’

엄마에 대한 내 마음은 굳은 떡처럼 딱딱해졌어요. 다시는 절
대로 말랑말랑해지지 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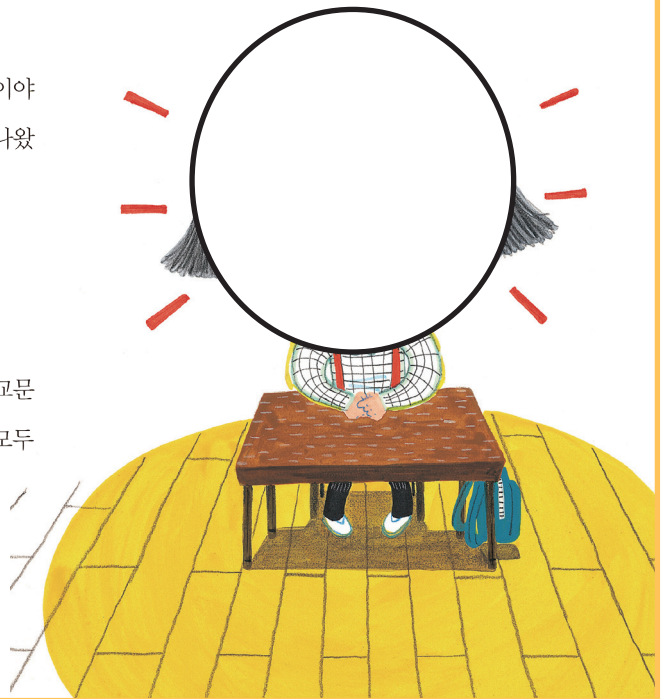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세란이도 이러쿵저러쿵 이야
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을 나왔
어요.

“밥그릇, 눈이 왜 그래? 친구랑 싸웠어?”

교문 앞에서 날 기다리던 아빠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미워! 엄마 밉다고, 난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

나는 참지 못하고 또 눈물을 터뜨려 버렸어요. 내가 올라 교문
앞에 서 있던 아이들이랑 아이들을 데리러 온 아줌마들이 모두
날 쳐다보았어요.



80

구름이의 표정

구름이의 생각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1단계



독서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왜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지 그 이유도 써 보세요.



위의 장면이
기억에 남은 이유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1단계

독서 후

1.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에서 세란이가 들려준 나쁜 새엄마 이야기와 실제로 구름이가 겪은 새엄마의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무엇이 다른지 아래의 표에 적어 보세요.



세란이가 알려준 새엄마

- 무섭고 나쁘다.
- 구박하고 괴롭힌다.
- 소금밥을 먹인다.
- 처음엔 잘해 준다.



구름이의 새엄마

2.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리 단정 짓고 걱정한 적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써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편견을 가진 대상	어떤 편견이 있었나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미래엔 아이세움 | 최형미 글 | 김다정 그림 | 100쪽

1단계



독서 준비

1. 아래는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의 표지입니다. 두 표지를 보고 서로 다른 5곳을 찾아보세요.



2. '마녀'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적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무시무시한 손톱과 해괴한 웃음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마법의 주문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1단계



독서

아래는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의 80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구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구름이의 표정을 그리고, 생각을 써 봅시다.

나는 너무 울어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몇 번이나 안아 주고 토닥여 주고 달래 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이제 나는 앞으로 엄마를 미워할 거야. 엄마도 날 미워하잖아.
그리고 엄마는 새엄마니까!’

엄마에 대한 내 마음은 굳은 딱처럼 딱딱해졌어요. 다시는 절
대로 말랑말랑해지지 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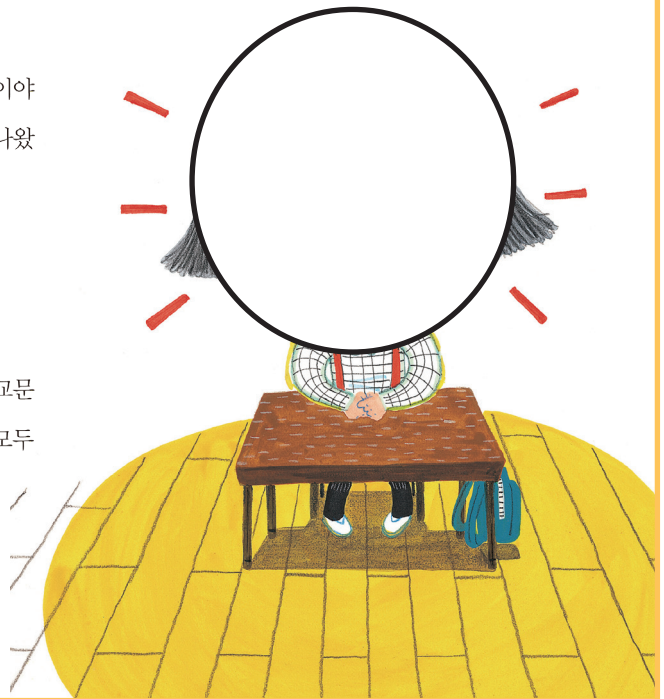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세란이도 이러쿵저러쿵 이야
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을 나왔
어요.

“밥그릇, 눈이 왜 그래? 친구랑 싸웠어?”

교문 앞에서 날 기다리던 아빠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미워! 엄마 밉다고, 난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

나는 참지 못하고 또 눈물을 터뜨려 버렸어요. 내가 올라 교문
앞에 서 있던 아이들이랑 아이들을 데리러 온 아줌마들이 모두
날 쳐다보았어요.



80

구름이의 표정 슬픈 표정 / 속상한 표정 / 엉엉 우는 표정

구름이의 생각 엄마가 오지 않아 너무 서운하다. / 엄마가 새엄마라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 나만 엄마가 오지 않아 무척 속상하다. / 엄마가 정말 밉다. / 슬픈 동화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1단계



독서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왜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지 그 이유도 써 보세요.

엄마가 생킨다고 좋아하는 장면 / 손도 안 씻고 과자를 먹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서
엄마에게 혼나는 장면 / 엄마가 누워 있는 병원에 찾아가 엉엉 우는 장면

위의 장면이
기억에 남은 이유

엄마가 생겼으면 하는 구름이의 소원이
이뤄져서 / 나랑 비슷해서 / 엄마를 미워하던
구름이가 사실은 엄마를 걱정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

1단계

독서 후

1. 《엄마는 마녀 아니 미녀》에서 세란이가 들려준 나쁜 새엄마 이야기와 실제로 구름이가 겪은 새엄마의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무엇이 다른지 아래의 표에 적어 보세요.

 세란이가 알려준 새엄마	 구름이의 새엄마
· 무섭고 나쁘다. · 구박하고 괴롭힌다. · 소금밥을 먹인다. · 처음엔 잘해 준다.	· 구름이에게 선물을 준다. · 진짜 엄마처럼 구름이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한다. · 구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고민한다. · 구름이가 워리랑 메리와 친해지도록 돕는다.

2.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리 단정 짓고 걱정한 적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써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편견을 가진 대상	어떤 편견이 있었나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경찰 아저씨 / 옆집 할머니 / 골목에 사는 고양이	무서울 것 같았다. / 잔소리를 많이 할 것 같아 무섭고 싫었다. / 불결하다고 생각했다.	모르는 길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알려 주셨다. / 엄마와 같이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과자도 주고 다정하게 말도 걸어 주셨다. / 스스로 몸을 목욕하는 습성이 있어 깨끗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